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돈이 도는 활기찬 경제

	<b>보도 자료</b>		
	<b>보도</b>	<b>2017. 1. 24.(화) 8:30부터</b>	<b>배포</b>

담당부서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자본시장감독국	임상규 부센터장(3145-7150) 장준경 국 장 (3145-7580)	최기영 팀장(3145-7177) 함용일 팀장(3145-7570)
------	----------------------	--	--

## 제 목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외국계 금융회사 CEO와 조찬간담회 실시

### 1 행사 개요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7.1.24.(화)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18개 외국계 금융회사(금융투자회사) CEO들과 조찬간담회\*를 개최하여

\* '16년부터 금융권역별 간담회 형태로 개최하고 있으며, '16.7.5. 은행권역, '16.10.28. 보험권역을 대상으로 외국계 금융회사 CEO 조찬 간담회 실시

-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규제완화, 외국계 금융회사에 대한 최다 출자자 적격성 심사 완화 등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2017년도 대내외 주요 리스크 요인 및 영업전망에 대하여 자유토론 하였음

### 2 주요 논의사항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미국·유럽 등 주요국 신정부 출범 및 글로벌 보호 무역주의 기조 강화 등으로 인한 우리나라 경제·금융의 불확실성 확대 우려와 관련하여
- ‘거친 파도가 유능한 뱃사람을 만든다(A smooth sea never made a skillful sailor)’는 영국 속담을 언급하며,

-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실물경제가 자본시장에 요구하는 점을 세밀히 파악하고 이를 기회로 포착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 금번 불확실성을 위기가 아닌, 금융투자산업의 체질개선과 도약의 기회로 승화시킬 수 있음을 강조하였음
- 이를 위해 2017년 금융감독원은 선제적이고 전방위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한 금융시장 안정에 감독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 장기화되고 있는 저성장 국면 속에서 경제의 역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산업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임을 밝힘
- 아울러, 외국계 금융회사의 원활한 정착과 견실한 성장이 국내 금융산업과의 공동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외국계) 대기업 IPO 주관업무 등 전통적인 비즈니스 영역을 뛰어넘어, 금융개혁을 통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 국내 금융회사와의 공동 사업모델 발굴 등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
- \* 예시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공동으로 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 펀드 패스포트 제도를 이용하여 우리나라를 거점으로 일본, 호주 등 아시아 주요 펀드시장에 진출
- (금융당국) 본국과 상이한 금융규제 적용 등으로 발생하는 외국계 금융회사의 경영상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감독체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 국경간 금융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 외국계 금융회사의 비즈니스 기회와 투자처가 확대될 수 있도록 금융중심지 정책을 운용할 예정

- 마지막으로, 최근 국내의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와 관련하여,
    - 우리나라의 경제·금융시스템은 재정·통화·금융당국간의 긴밀한 정책협력 체제를 통해 차질없이 작동되고 있고, 우수한 대외 건전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 \*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 추이 : '15년말 56.13 bp → '16.6말 55.09 bp → '16년말 44.71 bp
    - 장단기 도전요인에 한국정부 및 금융당국이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는 만큼,
    - 한국 경제가 견고한 펀더멘탈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음을 외국인 투자자 및 본사에 널리 알려줄 것을 당부하였음
  - 이번 간담회는 어려운 경제·금융상황 속에서 예년과 비교하여 신속하게 개최된 간담회로서
    - 이날 참석한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대표들은 금융당국의 보이지 않는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준비된 자세와 시장과의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음
- 붙임 : 간담회 참석 외국계 금융회사 CEO 현황 1부. 끝.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순번	금융회사명	성명	직위
1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서명석	CEO
2	노무라금융투자주식회사	후루야 타쿠야	CEO
3	제이피모간증권회사 서울지점	박태진	CEO
4	크레디트 스위스 증권 서울지점	이천기	CEO
5	메릴린치증권	박승구	CEO
6	골드만삭스증권회사 서울지점	사이먼허스트	CEO
7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정희정	CAO & COO
8	UBS증권 서울지점	장영우	CEO
9	도이치뱅크그룹	조진우	본부장
10	모건스탠리인터내셔널증권회사 서울지점	한승수	CEO
11	비엔피파리바증권주식회사	고선주	CAO
12	씨엘에스에이코리아증권	김종민	CEO
13	맥쿼리그룹	박상용	CEO
14	홍콩상하이증권서울지점	박가성	실장
15	교보악사자산운용	조옥래	CEO
16	프랭클린템플턴 투신운용	전용배	CEO
17	스팩스자산운용	스즈키 타케시	CEO
18	슈로더투신운용(주)	전길수	CEO